朝鮮日報
夕刊 三日(金)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歐洲大戰의 展望
長期化、擴大化는不免

一

歐洲大戰은 勃發한지 滿二個月이 된다. 그러나 波瀾이 消滅되는관이 波瀾軍 一六、三十萬 獨逸軍 十餘萬의 死傷이 잇섯다는 外에 이러타할 大戰鬪이 업다. 勿論 英海軍 及 商船의 擊沈된것이 五、六萬餘噸에 達하고, 獨逸의 被害도 相當히 잇지만 가장 破壞力의强한 空軍의活動이라던지 戰爭의 最後勝敗를 決定할 陸軍의 大接戰은 업섯다. 그리고 오직 外交戰과 宣傳戰만을 擅主하다시피 하니 이것으로 보면 歐洲大戰은 長期化할 可能性이 보인다.

二

보라, 萬一 英獨間 勝敗를 速히 決定할 形勢일것가트면 벌써 空襲과 國境突破戰이 展開되엇슬것이다. 그러나 獨逸으로서는 友邦이라 揚言한 蘇聯이 獨逸의 背後를 命脈하여 빨트沿岸及 北歐諸國을 制壓하고잇스며 빨칸諸國에 對해서도 依히 覇權을 掌握하라고 덤비지 안흐며 從來의 友邦인 伊太利는 蘇聯의 傍若無人的 態度에 猜疑의 눈을 가지고 빨칸諸國을 誘引하여 中立團結을 形成하라하며 따라當日의 友邦 獨逸과는 極히 消極的 態度를 取하지안는가. 獨逸이 뉘를 밋고 乾坤一擲의 大決戰을 英佛에 提議하리오. 英佛로서는 本來 長期戰을 企圖한지라 蘇聯을 中立시키고 伊太利를 傍觀케하고 그리고 빨칸諸國을 中立乃至友邦으로 맨든後 米國의 經濟的 乃至 軍事的 後援을 바더 獨逸을 海上으로 封鎖하고 써獨逸로 하여금 軍需品의 缺乏、食料品의 飢饉을 招來하라 하지안는가.

三

外電에 依하면 獨逸은 獨佛國境에 四百萬의 動員을 하엿다하며 近近 空軍을 大對하여 英本國을 空襲하리라한다. 그러나 마지노線을 넘어 佛國에突入하는것이나, 지그프리드線을 넘어 獨國境에 入하는 無는 軍事專門家의 一致한 結論이다。또 空軍으로 英國을 襲擊은 할것이나, 그때에 獨逸도 英國의 空襲을 바들 覺悟가 잇지아니치 못할것이다. 그러므로 戰爭은海上의 封鎖戰과 明確으로 展開될지며 空中戰及陸上戰은 間斷히 行할것이다。

이리하여 戰爭은 長期化하고 雙方의 軍需品은 消耗되어 雙方에 疲困의度가 加할뿐이 올것이다. 蘇聯이나 米國이나 伊太利나 다商品販賣者로 中立國으로 漁利를 得하게될것이다. 이長期戰에 가장 參戰하기쉬운處地에 잇는것이 伊太利와 米國이오 蘇聯은 그다음이다. 何故오하면 伊太利는 빨칸問題로 米國은中立法關係로 蘇聯은 地理的遠隔에 依한다. 그런데 獨逸과 伊太利는 聯合戰線을못펴고 個個的으로 英佛에 當하면 勝算은 더욱 薄弱해질지니 全體主義國家 又는 現狀打破國家群의 勢力의後退、現狀維持國家群의 强固化는 世界的重大問題가 아닌가。勿論 極東의帝國의 存在가 重大한決定權을가질것은 想像키 不難하거니와 帝國의 歐洲大戰에 不介入態度를取하고잇는 以上、西歐는 當分間現狀維持派의 獨擅場이될 憂慮가만타。

伊希不可侵條約成立
伊의빨칸工作積極化
勃、土兩國과도通商調整

【아데네二日發同盟】 希臘政府는 二日今番 伊太利政府와의 사이에 兩國間의 平和維持에關한 文書를 交換하엿다고 二日發表하엿다 右交換文書는 三日에 發表될터인데 官邊에서는 交換文書의內容은 伊希不可侵條約調印에關한것이다라고하엿다

【羅馬二日發同盟】 伊太利希臘兩國政府는 열직 兩國의 友好條約締結에 關하여 折衝中이던바 今番成立을보아 三日그內容을 公表하기로되엇다 確聞하건대 新條約內容은 一九三二年九月 伊太利蘇聯의 不可侵條約과 大略가튼것으로 豫想된다 一方 伊太利는 勃牙利와는 通商條約交涉을 進行하고 잇는바 調印을 暴露함이다 그리고 伊太利의 빨칸工作積極化에關하여 外交消息通은二日如左히말하엿다

新伊希友好條約은빨칸을 紛爭圈外에 두려는 뭇솔리니首相의努力의 새로운 證據로 伊太利는 勃牙利와의 通商交涉外에도更히土耳其와의 關係改善에도 着手할터이다 (寫眞은뭇首相)

는데 正式交涉에만 應하려면 痛痒을 느끼지안흘것으로 생각한다

米新中立法成立
二日、下院을無修正通過

【華盛頓二日發同盟】 中立法案을 討議하는 下院은 二日 샤레民主黨議員이提案한『國際協議會에 臨하는 下院委員이게 中立法中에 武器輸出禁止條項을 再挿入하도록 强調하라는 訓令을授하라』는 動議를表決한結果 二百四十三票對百八十一票의大差로써否決하고 更히上院을通過한 新中立法修正案이 그대로採擇되엇다 따라問題는 明三日 열리는 兩院協議會와 그結果에關한 上下兩院의裁可手續이 남어잇슬뿐으로 中立法修正案은 今日로써事實上成立을본것과가튼結果가되엇다

英國食糧相 食糧補給狀態報告

【倫敦一日發同盟】 英國政府는마침내빠터ー、베ー콘의 配定制를 實施하기로 되엇는데 모리손食糧相은 一日午後下院에서 빠터ー、베ー콘의 配定制實施及 砂糖、肉類의 補給狀態에 關하여 如左히 言明하엿다

政府는 빠터ー及 베ー콘의配給에關하여 近近(大槪는 十一月中旬頃)每人當 一週間四온스의配定制를 實施하려고 考慮中이다 빠터ー、베ー콘의補給은 目下歐羅巴方面으로부터의 輸入減少되고 잇는데 近近增加될것으로보인다 砂糖에 對하여도 通常需要를 充足시키기에는 充分하나 消費者가 一週一폰드씩 購買를禁止한다면 아직도 數十個月은 配定制를 實施하지안허도 各方面需要에 應할수잇슬것이다 肉類도 早晩間輸入量의 減少가 豫想되

天皇陛下御親拜
今日、明治節祭御擧行

【東京電話同盟】 菊花香기러운 明治節인三日 宮中에서는 天皇陛下 御親拜下에 嚴肅한 明治節祭의 祭儀가 御擧行되옵시엇다 이날아침 恒例의 御盛宴은 恐懼하옵게도 時局에鑑하사 止하옵섯는데 一億民草는 午前九時를期하여 一齊히默禱 明治天皇의 御鴻業을생각하고 御聖德을 奉仰하엿다 宮中三殿에서는 宮內官總代 土岐秘書課長 高尾事務官等이 參列 三條掌典長以下 奉仕하여 神饌幣物을奉奠 三條掌典長祝詞를 奏하매 午前十時 天皇陛下께옵서는 御束帶黃櫨染御袍를 입으옵시고 玉串을 잡으옵시사 暫時 御參進 內陣의御座에 御親拜하옵신後 陛下께옵서 入御하옵신後 諸員의拜禮가 잇슨다음 御儀를 마치엇다 天皇 皇后兩陛下께옵서는 午前十一時 御學問所에서 秩父宮同妃兩殿下를 奉始하사 各皇族殿下에 御對面 御祝詞를 바드옵시고 湯淺內府 松平宮相 百武侍從長 蓮沼武官長等 側近도 拜謁을밧드러 恐悅을 言上하엿다 그리고 阿部首相以下文武百官은 午前九時부터 參內 東御車寄에서 參賀를 言上하엿다

晩遊金剛 ②
啓礎 方應謨

望軍臺에 當到하니 금을모리 己 든도주지안코 內金剛一帶의 變幻無雙한 千峰萬壑이眼下에버러저 제절로 快哉를連發케한다。

金剛、新金剛은 보이지안흘망정 內金剛一圓은 여기서定히一眸아래 거둘수잇다。東北에 毘盧峰도 壯커니와 그아래로 衆香城은 더욱아름답다。香爐峰의 端雅한態도 귀엽고 錦繡에싸힌 正陽寺全景은 멀리 斜陽아래偉觀을이루엇다。하도만히듯던 斷髮嶺은 西方에 한거름물러안젓다。

左右 兩水相峰을끼고 안즈니望軍峰은 麻衣太子 坐正해던곳이分明하다。그러나 생각컨대 멀리 南方으로 쫓기는太子의 心眼은 亦是父王께로 向햇슬터인데 後人이그만 性急히望軍이라 命名한가도십다。도다오르는 興을 不勝하여 即席에吟詠하바잇스니다음과갓다。

上坐望君조相右 往年太子先我名 俯視千峰萬壑谷 潤水無言唱咽鳴

아무리 둘러보아야 峰하나 谿谷하나 버릴것이 업다。모두 情이 간다。歸路 靈源庵에 들러서 夕陽에 宿舍로 돌아오니 萬念이 俱灰되고 胸中이 오직 金剛感懷로 充滿함을 느낀다。

第二日은 前日보다、한時間 일르게 發程하여 첫머리로 長安寺를 參觀하엿다。그寺法務 裵錦峰氏의 格別한 厚意로 大雄寶殿을 비롯해서 懶翁刀痕이라는 四聖殿의 十六羅漢像을 拜觀하고, 羅代末葉의 巨匠의 手法에 敬服햇다。尤中에 頭威羅漢像은 凡眼에도 傑作임이 分明하다。

鳴淵의 아담한 配置도조커니와 거기配合된 金同居士의 傳說도 한결 情趣가만이잇다。三佛岩前에 발을 멈추고 岩面에 살아잇는 名匠懶翁의遺作에 잠시 마음을빼앗겻다。

顯忠堂에 參拜하고 白華庵墟를 차저드니 古石塔、浮屠의影刻이 古代의 燦然한文化의 相貌를 남기고잇는데거기 比해서 겨테세운 초라한近世石物은 오직賦棄하고시플뿐이다 四圍를 쪽둘라싼 山形이 絶妙하다。

얼마뒤에 萬瀑洞을 건너서 表訓寺에 座定한 含影樓의 凌波樓에 이르럿다 含影樓의 凌波樓라던지 本堂인 般若寶殿그겨테 開潤迎賓樓이던지 配布와構造는 果然金剛四大寺의 一의 일홈에露當하건만 管理를 소홀히한까닭인지 퇴락해보인다。寶物安置室에서 石刻佛像과 新羅統一時代의 遺物이라고하는 觀世音菩薩像과 밋小形梵鐘等 貴重품을 拜觀한것은 以上여시 기뻣다。여기도 貴重한 寶物들의 收藏을겨을리한 嫌이업지안타 當寺當路者의 一省을希望한다。

金剛門을버서나니 이곳서부터가 寶完金剛第一步인세음이다 萬瀑洞於口에當到하니 青鶴臺下에갈린盤石아래 물소리도 조커니와 마조보이는 金剛臺그녀머五仙峰의 琦瑋한 丹楓色이 眼目을恍惚케한다 四仙岩上에서 點心을먹기로햇다。影娥、白龍、黑龍、琵琶、碧波의變化無窮한瀑水를지나 噴雪瀑湯에다리를쉬니 可謂源味萬瀑이다 斷崖에 危危롭게 걸려잇는普德庵의 奇觀이 또한三嘆을마지안케한다。

眞珠潭에 멈춘던 발길이 終乃떠러지기를시려하나 다시龜潭、船潭、碧潭、奇奇妙妙한水石에 醉다가 萬瀑八潭의 最終曲인 火龍潭에이르럿다。獅子岩起身을動員하야 지어노흔 佛教緣起의 傳說을 이變幻無窮한 絶景에配合한것은 分明 初創期佛教徒의 賢明한 措處엿다。

行程이 急한지라 摩訶衍에잠시 들엇다가 萬灰庵 衆香城의 못보는 遺憾은 後日로미루기로하고 亦是 懶翁의作이라고하는 妙吉祥大佛像을 拜觀한후 四仙橋에서 暫時 쉬어가지고 一路 毘盧峰突破의 길에 올랏다。한山峽을 지나면 또한山峽이 가로막고 그山峽을 또지나면 다시 새山峽이 行路를 끈는다。겨우毘盧峰을 멀리 바라보니 이를은 銀梯요 金梯라하나 이도한 前日 望軍臺路에 못지안흔 險途이다。日沒과함께 겨우 山上에 다다르니 昏暮中에 眺望을 즐길수업다。上頂의 久米山莊에서 行裝을풀럿다。(寫眞은 萬瀑洞)

外相、瑞典代理公使에 通報諒解回答

【東京電話同盟】 위스트랑드駐日瑞典代理公使는 지난 九月二十九日附書翰으로써 野村外相에게 對하여 瑞典國政府는 今番勃發된 歐洲戰爭中 瑞政府의要請에 依하여 佛領植民地又는 佛委任統治地域에 잇는 獨逸의 利益을 代表하고 잇는 波蘭國政府의 要請에 依하여 獨逸에잇는 波蘭의 利益을 代表할것을 承諾하엿다는 通報를 한데 對하여 帝國政府로써 이를 諒承하엿다는 回答을 하엿다

蘇、土、羅會談開催
三國關係調整에盡力

【이스탄불二日發同盟】 莫斯科에서의 蘇土交涉의決裂로 土耳其는 英佛接近을 促進하여 英佛土相互援助條約을 成立시킴에 이르럿는데 二日 確聞하건대 蘇土兩國政府는 近近兩國間의 紛爭을 解消하고 羅馬尼亞를加하여 三國關係를 調整하기로 意見一致를 보앗다 蘇土羅三國會談은 스토이카駐土羅馬尼亞公使의 斡旋으로 앙카라市에서開催될模樣인데 特히 將來會談에서는 蘇聯과勃牙利의對羅馬尼亞失地回復이 빨칸紛爭의 禍이되어잇는데 鑑하여 土耳其는 蘇聯의 베사라비아要求와 勃牙利의도브루자要求를關聯한 蘇羅紛爭解決의 이니시어티브를取하여 蘇羅兩國을 하여금 外交交涉에依하여 安協點을發見케하려고 努力할것으로 보인다

米船拿捕의 合法性主張

【伯林二日發同盟】 獨逸海軍의 米船시티·오브·프린트號拿捕事件은 米蘇兩國間의 紛爭問題로化하여 그推移는 注目되는데 二日獨逸當局은 이것은 何等不法이아니라고 다음가치 述하엿다

米船시티·오브·프린트號는 目下獨逸乘組員의손으로 獨逸本國에 曳航中이던바 이것은戰時禁制品에關한 國際法에 嚴格히 依據하여 잇는것으로 何等不法이아니다

英國은不介意
英首相、蘇外相演說反駁

【倫敦二日發同盟】 二日午後下院에서한 체임벌린首相의 演說要旨는 如左하다

先週中의 海陸空作戰은 모두天候險惡으로 말미아마 매우阻止되어 西部戰線의 攻擊軍의活動도 閑散한狀態에 不過하엿다 海上戰鬪에 잇서서는 若干의英國商船이 出現하엿는데 敵潛水艦의 脅威를克服하려는 我國의確信은 微動도 하지안헛다 蘇聯最高會議에서의 外交人民委員의 演說을 獨逸은熱心으로 待望하고 잇섯지마는 余가보는바에 依하면 모로토프外務人民委員의 演說은 獨逸側에 若干의失望을 준模樣이다 英國政府는 愼重히 이演說을檢討한바 特히演說이 蘇聯政府今後의 目的을限定하고잇는點에關心을갓고잇다 지난五月二十一日의 蘇聯最高會議에서모로토프外務人民委員은 蘇聯의立場은 어데까지 戰略阻止를 支持한다는言明을 하엿는데 모로토프委員은 英佛聯合國의 目的에對하여 지나친想像을하고 잇지나안는가 余로서는 何等妨害될것이아니다 最後에余는 英本國의對獨戰爭을支持하는 英帝國一致의 決意에 感謝하는바이다 自治領及印度代表들은 戰爭遂行에關한 協力에關하여 協議하고잇다 植民地의 協力은 只今은 主로 經濟的 性質의것인바 政府는 植民地의 人力을 戰爭遂行에 最高度로利用할 計劃을 立案中이다 我帝國의 協力援助야말로 崇高한 目的을爲한 自發的協力과 自己犧牲의빗나는好證이다

獨蘇間通商은 빠터制로決濟
獨蘇通商協定細目折衝

【伯林二日發同盟】 獨政府는 一日 獨蘇通商交涉이 大綱的으로成立되엇다고 發表하엿는데 獨逸側에서는 伯林에서 駐獨蘇聯大使와 獨逸政府와의 間에 最後的折衝이 進行되고잇서 二日伯林과 莫斯科에 各各經濟代表團을 置하여 細目折衝을 繼續하기로 意見一致를 보앗다 一方 蘇聯側 專門家는 獨逸의 各工場을視察하고잇서 그後多數의 機械其他 各種工業製品의 注文을發할터인데 獨逸側도이와 交換的으로小麥、고무、鑛石等蘇聯生産物에 購入注文을發할것을豫定이라한다 그런데 이獨蘇兩國間의 通商協定에는 거의다現金淸算은 업고 原則的으로 빠터制로 決濟될터이라한다 그리고 最初의協定으로는 獨逸의蘇聯製品購入高는約八千萬米弗豫定이던바 今回新通商交涉成立의結果 更히 增額될것으로보여 獨逸訪蘇經濟使節 슈누레가 近近莫斯科를 出發하여 本國으로 歸還하고 獨蘇通商交涉上의 專門的事項의 調整에 當하리라고 期待된다

日蘇國交調整은 雙方努力에期待
沿海州朝鮮人의大量移動은不知
蘇大使京城서會見記

赴任途中 京城에滯留中인 駐日蘇聯『스메타닌』大使는 三日午前十一時에 京城蘇聯總領事館에서『스메타닌』『마리크』兩參事官及 新任京城總領事『지코고』同席하에 京城新聞記者團과 처음으로 會見하고 日蘇國交調整에 關하여 다음과가튼 對答을 하엿다 記者團의質問이 시작되기前에 大使는記者團과 맛나게된것을 기뻐하고 먼저 明治節을 祝賀한다는 人事를하고서 質問에應하엿다

▲貴國途中 滿洲에서 新聞記者들과 만난일이잇는데 내가 한 이야기와는 틀리는것이 만핫다 여러분은 내가이야기한대로 記載하여주기를 付託한다 歐洲新聞과 蘇聯新聞을보면 日蘇國交調整問題는 잘알게될것으로 생각한다 蘇聯은 언제던지 平和를 維持하려고努力한다 滿洲와의 國境問題도 日本과平和的으로 解決하려고한다 蘇聯은 自己國境을侵犯하는 어떤나라의軍隊에 對해서던지 힘껏反擊은 하기마는 스스로 나아가서 侵略하려는 생각은 全然가지지안헛다 日本과 蘇聯과의關係는 漸漸 조아저가게될줄로안다 日本政府에서 速히 解決하기에 努力하면 蘇聯은 언제던지 平和的으로 解決할 準備를 하고잇다

▲모로토프演說中에 日蘇國交調整에關한 이야기가 잇고 通商協定을 云云하엿다하나 나는 道中에 新聞을 보지못하엿스므로 자세한 內容은 알수업스며 따라서 무엇이라고 批評은 하기어려우나 貿易은 서로하여가도록 하는것이 조흔일일것이다

▲蘇聯이 아프로도 蔣介石政府를 援助하겟느냐는 質問이잇스나 이것은 滿洲에서도 新聞記者를맛나서 이미 이야기하엿스니 더다른말은 할수업다

▲노몬한事件은 日蘇雙方에서 國境確定委員會를 定하고잇는터인즉 不分明한 一部의 國境線만確定하면 圓滿히 解決을 지을것으로 나는 信한다 國境이 不分明하기때문에 各種事件이 이러나는것은 서로가 損害되는일이다

▲所謂 日本의 東亞新秩序建設問題에 對하여는 莫斯科에서 發行하는『이즈베스치야』新聞에 仔細히 報道되엇고 또한 日本新聞記者에게 알아듯도록 說明한일이잇다 이제새삼스러히 못지말기를바란다

▲蘇聯과獨逸과의 軍事同盟締結問題에對해서는나로서는아직무어이라고責任잇는對答을할수업다

▲波蘭問題는 獨逸側에서 占領한部分은 어떠케 處理될는지 알수업스나 西『우크라이나』는 그地方民衆의要望에따라 白露西亞에 들어가서 蘇聯의勢力下에 編入되엇다 이것은그地方의 代表者가 莫斯科에와서 蘇聯側과 仔細한協定을하는中이다

▲年前에 蘇聯東部地方에 살던 만흔 朝鮮人을 中央亞細亞로 强制移住시킨일과 그뒤의 消息을 무럿스나 自己는 全然알지못하는 일이다

▲朝鮮과滿洲는 二年前에 한번 通過한일이 잇다 이번에도 京義線을 지나게되어서 沿線은 볼수업섯스나 數日 京城에 滯留中에잠간 박게나가보니 京城은相當히큰 都市이며 조아보인다 이로써 이야기는 마첫다 때는 午前十一時四十分이엇다

(寫眞은 記者團과 會見하는 스메타닌 駐日蘇聯大使×)

樞相、京都에

【東京電話同盟】 近衛樞相은 京都의平安神宮本殿竣工式에 參列하기爲하야 三日午前九時東京驛發 西下하엿다 七日午後九時 東京驛着 歸京할豫定이다

人事·集會

◆姜良明氏(京城保護觀察所長)二日午後大學病院에서別世 四日午後五時 西本願寺에서葬式

八面鋒

◇戰時 金融政策으로 어제야 米穀國家管理案을 斷行키로決定。

◇晩時의歎이 업지안흐나 어떠튼 해보는게지오。

◇中國共產黨 近日 國民大會를 開催하여 獨立政權을 擴大할方針이라고。

◇드디어 國共合作도 갈데로 간셈이지。

◇總督府엔 物資動員總本部로 企劃部를 新設하리라고。

◇必要하면 機構의 改革도可、新設도 亦可。그러나 要는機構運用에 잇겟다。

◇京城府에선 石炭對策으로 登校時間、休暇延長을 硏究中이라고。

◇달은데 주려쓰드래도 學校用石炭만은 어떠케든 確保策을 講求하소。

◇明治神宮國民體育大會의 重量擧競技에서 南廷俔君 新記錄作成。

◇健全한 精神은 健全한 身體로부터。

海外經濟 三日

	三日	比較
紐育株式	[illegible]	[illegible]
工業株指數	[illegible]	[illegible]
鐵道株指數	[illegible]	[illegible]
米棉(先物、現物、平均)	[illegible]	[illegible]
爲替(英日、英米、日米)	[illegible]	[illegible]
紐育生絲(先限、現物)	[illegible]	[illegible]
시카고小麥先限	[illegible]	[illegible]
倫敦金塊	[illegible]	[illegible]
倫敦銀塊	[illegible]	[illegible]
紐育銀塊	[illegible]	[illegible]

今日本紙四面

朝鮮서도라가서
吉川登美子

京城에 滯在하엿슬동안에는 여러가지로 感激하엿습니다. 購物로주신精力强壯劑『ー』은겨울이되어『세트』에들어갈때에먹어서 몸을 튼튼하게해가지고 일을할라고합니다. 朝鮮은참으로 조흔곳입니다 어번에 꼭 와 보고 심습니다. 京城에 거기서 만든 내가 본 ... 도 만히보도록 나의 『ー』을 에게 願하고 싶습니다. 한번더가보고싶습니다.

朝鮮總督府看守募集

(一) 十一月十七日午前九時ヨリ 京城、西大門、仁川、金山浦、小鹿島ヲ除ク全鮮各刑務所 支所

(二) 十一月十九日午前八時ヨリ 京城府峴底町 朝鮮總督府刑務官練習所

朝鮮總督府刑務官練習所

金融支所開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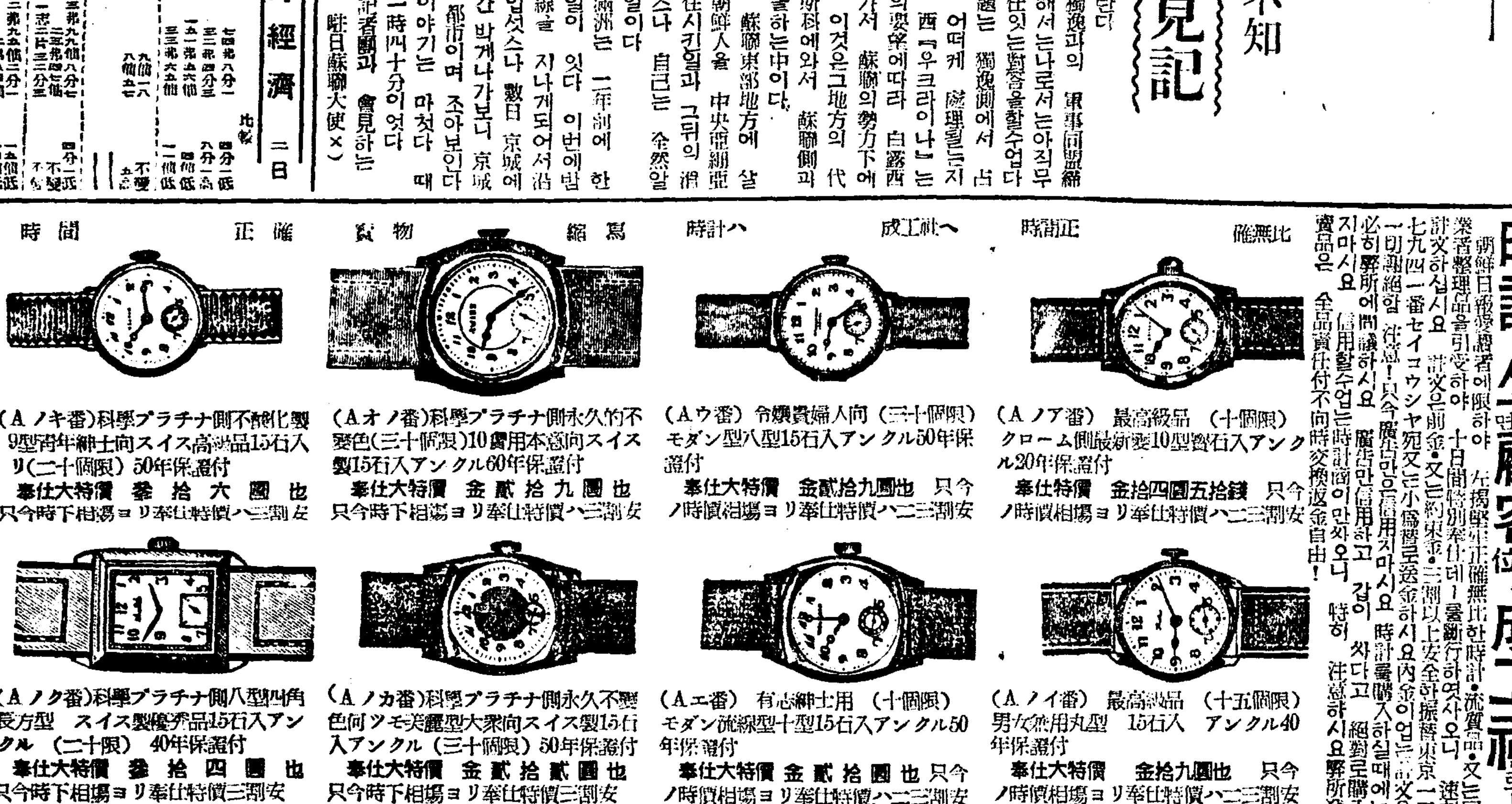
忠南禮山郡禮山邑(元禮山府 出張所跡)에 當支店金融支所를開設하고 不動産擔保其他金融業務를 取扱하옵니이다

十一月二日

東洋拓殖株式會社大田支店

時計·쓰시려면 顧客本位의 成工社로!

朝鮮日報愛讀者에限하야 左揭堅牢正確無比한時計·流行品·文具同業者整理品을引受하야 十日間特別奉仕데ー를斷行하엿사오니 速히 註文하십시요 註文은前金·又는代金引換·三割以上安全한振替東京一五七九四一番セイコウシヤ宛又는小爲替로送金하시요內金이업는註文은 一切謝絶함 注意!只今廣告만은信用치마시요 時計를購入하실때에는 必히驛所에問議하시요 廣告만信用하고 갑이 싸다고 絶對로購入지마시요 信用할수업는時計商이만사오니 特히 注意하시요驛所發賣品은 全品責任付不向時交換返金自由!



今日·明治佳節 全民衆、赤誠의奉祝

국화가 향기로운이때의 명치절을 사번하에 세번째맞는 금삼일은 선조선관민이 모두명치천황(明治天皇)의 어성덕을 앙(鄕賀式)을 우러러 생각하며 오전구시 국민봉축시간의요배를 비롯하여 총후조선의 뜻기곤절의 행사가 각가지로엄숙히 거행되었다 이날아침 신궁에서는 오전팔시부터 본전대전(本殿大前)에서 아지와 궁사(阿知和宮司)봉사 남총독 대야정무총감이하 군관민대표의 참렬하에 중제식(中祭式)으로써 엄숙히 집행하고 총독 총감이하 참렬자일동의 옥관(玉串)봉전이있고 어렴시반 식을마치었다

總督府

총독부의 명치절봉축식은 오전시서부터 남총독이 서울에있는 각국영사단과 외국사람들의 축하를받고 동이십분부터 제일회의실에서 남총독 대야정무총감이하 고등관、조선군측국장관、동신문부터 편임관、촉탁이원들이 참렬하여 최고경례로써어진영을 봉배하고 엄숙하게 식을마치었다 그리고나서 참렬자일동은 국화만발석된 큰회의실로모여 냉주를 들어 성수만세를세번불렀다

軍司令部

조선군사령부에서는오전아홉시부터 회의실에서 어진영봉배식을거행 중촌(中村)군사령관이하 전직원이 참렬하여사변중에 의의있는식을 성수만세로써 마치었다、체이사단 사령부에서는 오전아홉시부터 어진영봉배식이 있었다

遞信局

체신국에서는오 산전(山田)체신국장이하 직원등 이백여명이모여 성수만세를 부르며 식을거행하였다 그리고전매국 활도국이며 각학교에서도 일제히봉배식이있었다

京城府、官民의 合同奉祝式 神宮南庭에서擧行

칠십오만부민의 명치가절봉축식은 상일오전열한시부터 신궁봉찬전 남정에서 판민일천여명이 참렬하여 성대히 거행하였다 식은먼저수불(修祓)로부터 시작하여 국가주악을 하면서국기를 올리달고 고교(高橋)부윤이 부민을 대표하여 옥관을봉전하고 일동이 궁성요배 봉축문낭독、황국신민서사제창을 하였다 끄트로 천황폐하의 성수만세를 세번불러 가울하는노피 부민의 적성과 봉축의 기쁨을 올리고 열두시에 식을마치였다

寫眞說明 (上)총독부의 봉배식 (中)외국영사단의축하 (下)신궁의판민합동봉축식

砂金鑛을積極開發

補助金을增額하여大大的으로採鑛 產金增產計畫에一層拍車

산금증산회계에 의하여 총독부에서는 명년도부터 사금광구(砂金鑛區)를 대대적으로 조사개발하기로 되었다 종래는산에서 채굴하는 소위석금(石金)광에는 선광(選鑛)에 삭할、탐광에오할을 보조하고 사금에는"보링"으로탐광하는데만하여약간의 보조를 하였을뿐이었는데 명년도부터는 최신사금채취기계인"도라구라인"과 종래 사용하여 오던"드렛샤"로써 사금을 채취하는데 채취보조금을 종래보다상당히 증액하여 사금개발에 박차를 더할계획이다

현재석금광은 약삼천수백여광구가잇스나 사금광은 겨우삼백팔십여광구가 잇슬뿐인데 실상 산금증산계획상으로보면 석금보다 사금개발이 훨신속하고 또 경비도 매우절약된다 석금광선광、채굴、제련등에 막대한경비를 들여서 굉장한설비를 하지안코는 안되는동시에 이만한설비를하자면 공사선、도로등 공사를 실시하는 편계상 상당한시일을 요하게된다 그러나 사금은탐광에대하여 그런번잡한 설비가필요치안을뿐아니라 채굴에잇서서도"도라구라인"과"드렛샤"등의 설비만잇스면 채굴과제련을 석에서곧 내내는것 까지 제품로되는것이다 그리하여 사금광은 설비가속하고도 적은경비로 할수가잇서서산금증산에는 가위 일석이조(一石二鳥)가되는 것이므로 총독부에서는명년부터 직접사금지를대대적으로 조사하여 산금지통회사 또는 금산개발회사로하여금 사금개발을 경영하도록 할계획이다

神宮體育大會마라손 吳東祐君이優勝!

三着에는南起龍君

사진(上)오동우군(下)남기룡군

【東京神宮競技場에서本社特派員 高鳳梧電話】 명치신궁체육대회의 최종일인 삼일오전여덟시부터본대회에서 최대의인끼를끌고잇는 마라손경주는 이만편종의환호리에 개막되어 조선선수 오동우(吳東祐)군이우승하여 조선군의 만장의 기염을 토하는가운데 대회는 원만히 막을다치었다 이날 날씨는 잘개이고 바람도 자잔하여 컨디슌은 조았다 경기는 전국에서 모인 삼십팔명이 참가하여 여덟시오십분스타-트를 끄혔다 경기는 백열적으로 전개하여 두시간만의 대접전을치르고나서 맨선두에들어서는것이조선군의절도국오동우(吳東祐)군、하사람건너서제삼착이 백림올림픽에서 삼착한남승룡군의 아우인남기룡(南起龍)군이달려들어 마라손이도조선군이 압도적승리를이루어 만장의 갈채를바닷다 기록은다음과갓나

一着 吳東祐 二時三十一分二十六秒
二着 樺澤(靑森) 二時三十四分二十秒
三着 南起龍(明大) 二時三十六分五秒
四着 井上(福岡) 二時三十九分五秒
五着 秋濟(東京) 二時三十九分二十秒
六着 古賀(福岡) 二時四十一分八秒

이가치하여 동대회의 마라손경기는 김은배(金恩培)군을 비롯하여 권태하(權泰夏)손기정(孫基禎) 남승룡、유장춘(柳長春) 이번의 오군까지 전후팔년동안 조선선수가 우승하여왓다 기록은손기정군의 백림올림픽의 기록 두시간이십구분사십초보다 만히떠러지나 전일본적으로 마라손경기에열을 내어오던만큼이번오군의 승리는조선경기계를위하여만장의 기염을토한것이다

孫基禎君談

오군은 장래가 더욱유망한 마라손너입니다 이번의경기경과를보면 실후마일까지는 오착을한사람이 선두로가고 오군은 오십미돌가량 떨어져를아오는 지점까지는 오착이엇는데 돌아서면서부터 다때어버리고 선두로달리어 못까지 일착을 하엿습니다 그러고삼착한 남군은 유착으로달리다가 이십마일에와서 두사람、다시 이십오마일에와서는 셋재되나서서 결국삼착을햇습니다 유쾌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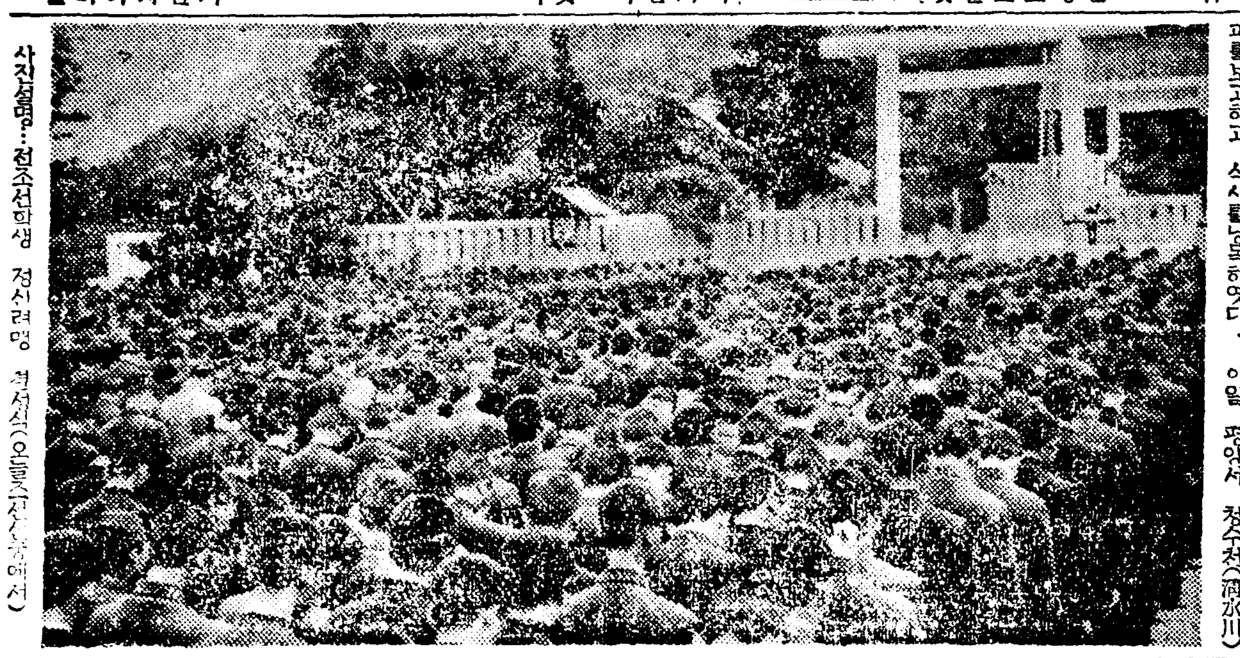
先輩孫基禎君指導의膳物

優勝한吳東祐君談

결승점에들어선 오군은 피로하빗도업시 다음과가치말한다

이번우승은 특히 선배손기정씨의도움이 큽니다 이번에동경오자 손형이꼿 자기하숙으로데리고가서 숙식을가치하며 코-스에대해서 자세한설명도 해주고 실제로가치 연습을시켜주고 또 이곳선수들에대한 작전도 갈켜주어 그대로차운결과 우승을하게되엇습니다 특히 오늘도 손형이 오토바이로 따라다니면서만흔주의를 주어 편순조로히차웟습니다

X光線完備 大京齒科醫院 京城鍾路三丁目 電話光(3)三〇二〇番



사진설명…전조선학생 정신련맹 결성식(오늘조선신궁에서)

全朝鮮學生을뭉처 精神聯盟을結成

今日 神宮大前에서誕生

총후의 물결은 애국심으로써 전조선 오천여명학생을 뭉처서 한덩어리로만들어 청소년학도에게 내리신 칙어(勅語)의 서지(聖旨)를 받들고저하는 조선학생정신연맹은 명치가절인 오늘 드디어 결성되었다 오전열한시반 경성부내의 각공사립 전문과 경성제국대학 남학생 사천여명이 조선신궁에모여 총후의 학생다운 규률있는자세로 궁성요배 국가합창으로부터 결성식은 시작되었다 청소년학도에게 내리신 칙어를 속수(速水)성대총장이 봉독하고 연맹연원으로부터 결성식에 이르기까지의경과를보고하고 식사를낭독하였다 계속하여 선언문을가결하고 총독총사를 팔목(八木)총독부 학무과장이읽고 천황폐하만세를세번불러 흥아의청년으로서의 피가끌어넘침을 나타내었다 이리하여 오후영시반 식을마치어 연맹은 기쁨의탄생을 보았다

神宮體育大會

莊重한閉會式擧行

【東京支社電話】 제십회명치신궁국민체육대회는 여섯동안에걸처 날세도조하 마지막날인 삼일의 명치가절을 마지하여 폐회하였다 더욱이 천황(天皇)의 망영을입어서 감격에 넘치던 이날의경기를순서대로 진행하고서 오후네시반에 폐회식을 하게되엿는데 이긴사람들에 트로피를 치신궁외원(聖火)를이받드러서해 가져오라간는식장에는 그름이 『스탄드』 봉관에타오르고 잇섯스며 이백여명 천고흐르는 행봉악과 함께 망영있은 표창 그리고서 좌좌목(佐佐木)위원장의 폐회식사가 잇고 오백명의 음악단이 대회노래를 합께 부르고 표창식을 거행하엿다그르토 회장의 발성으로 전원이 만세를 세번부르고 대회의 막은 다치엇다 선수삼천명을비추어내엇다 찬렬한 대표선수 믿의 위원단과 만흔관중으로부터 열렬히 박수를하엿다

明治神宮体育大会 第6日

朝鮮蹴球協會主催 綜合蹴球大會

中央、普明、進興軍各勝

全朝鮮蹴球協會主催(第二十回)全朝鮮綜合蹴球選手權大會 第二日 三日 午前 九時부터 小學部를 비롯하여 中學部 一般部가 일이 京城運動場에서 擧行되었다

이날 小學部 錦城小學對攻玉小學第一回戰은 午前九時부터開始될 豫定이었는데 攻玉小學校의 棄權으로 錦城小學이 不戰一擧決되어서 準決勝戰에 올게되었다 普明小學對東明小學第一回戰은 十時 十二分에 卞洪錫(主) 李惠鍾、國漢範(線)三氏審判下에 東明의 「키크오프」로 開戰되자 前半에 普明의 壓倒的優勢로 二對零 後半에들어가 亦是普明軍의 一方的 「게임」으로 二對零 結局 四對零으로 東明軍이 敗하였다 (게임四十分間)

普明4 (2—0 2—0) 0 東明

興農小學對進興小學 第一回戰은 十一時五分부터 洪淳亨(主) 金元林 李中官(線)三氏審判下에 進興의先蹴으로 開始되자 前半에 進興軍이 二對零으로 勝勢를 보이며 前半을마치고 後半에들어가 興農軍이 一點을 挽回하여 二對一로 接戰을 일우다가 「타임업」되어 結局 進興軍이 一對一로 勝利하였다

【普明】【東明】 [illegible]

進興2 (2—0 0—1) 1 興農

【進興】【興農】 [illegible]

中學部 中央對商工第一回戰은 十二時부터 開始되바 前半에中央軍이 一對零으로 「리-드」한채마치고 後半에商工軍 前半에 中央軍에게 빼앗긴 一點을 回復하려고 하였으나 亦是中央軍에게 壓倒되어 進行하다가 또 中央軍이 一點을 得하여 二對零으로 商工軍이 惜敗하였다

中央2 (1—0 1—0) 0 商工

【中央】【商工】 [illegible]

朱牧師辭免要求

平壤署에서山亭峴教會堂會에

【平壤支社發】 누보한산정현(山亭峴)교회의 수요(이일)예배를 누구가 강설하는가하는점이 당면의 주목을 끌고있섯는바 결국오윤선(吳胤善)장로가 사회를하후 당국이예상하지안흔 채정민(蔡廷敏)목사가 설교를하엿다 이일 평양서 청수천(淸水川)고등계주임은 경찰부에나타나장시간 협의를한후 평양서로돌아가 오윤선씨등 당회의원중경의 네장로와 회견하고 그석상에서 위선당면한 문제로서 검속되어 잇는 주기철(朱基徹)목사를 사면하도록 사표를제출케하여 이를 수리하라는것을 권면하엿다 이에대하여 당회측에서는 그것이 곤란한사정을말하고 즉석에서 대답할성질의것이못되니 다시제직회(諸職會)를 열어서 대도를결정하여 대답하겟다고 약속하고 돌아와다시협의를 거듭하고 잇는중이다

志願兵

二、三班도內地에

육군특별지원병훈련소생수하여행단 제이단도 제일단의 뒤를이어 상일오전아홉시에 경성역을떠낫다 제삼단은 이날밤열시오분에 하관으로 떠날터이다 대판 산전(山田)훈성 경도(京都)등각처를 구경하고 오는십삼일과 십사일에 나누어도라온다

商工獎勵 十周年記念

오는십일은 총독부상공장려관시축개관십주년 기념일이므로 식산국에서는 이날 오전열시부터 부민관에서 십주년기념식을 거행하고 그리고 기념행사로서십일부터 십륙일까지 총독부상공장려관에서 생산력확충부역진흥전람회를열다

몸부칠곳업는 六十老人自殺

삼일오전열시 부내죽첨정삼화장(竹添町會館)會흥서에 나이예순(李禮順)된 영감이 허리도로 나무가지에 목을매고 죽은것을 산보하던사람이 보고 서대문서에 알려왔는데 유서에 의하여 몸부칠곳이업는 늙은 몸을 슬퍼한 자살이라는것을알엇다

사람이 인사를 채리다는것은남을위해서 하는일인동시에 나를 위하는것이다▲아니 남의체면을 위하기보다 내체면을 위해서더 정중하여야할것이다▲사람이단하루만을 산다면 도를리도한편생활 사는이상도조상이잇고 자손이잇는이상이라 두고두고 앞날을위하여오늘을 아껴야하는것이다▲그러고 사람이 서로서로 의지하되 지말고 다니지말고 제힘인만 위하지말고 서로양보하는 가운데 사람은 세상의 풍속이잇고 질서가 생기는법이다 ▲이가치해서질서절도가갓다 달리는기차가 궤도가업서 어떠케 전진할수잇스랴 ▲아니 제가 한자리에 설수나잇스랴 ▲전체를위하여 자기뜻을 버리고、자기뜻을 세우되 전체를위하여 생각함에자기뜻의 귀함이 잇슬것이다 ▲반성함이 때곰곰히생각해볼이가을。

天氣豫報

豫報 오늘밤은흐렸다 가랑비가오다 내일은개었다흐렸다한다

昨日最高 一六度七
同 最低 零下零度二
三日朝最低 五度五
同 正午 一二度

籠球

【東京에서本社特派員 高鳳梧電話】 第十回 明治神宮國民體育大會第六日인 三日午前 十時半부터 國民體育館에서 擧行되었는데스팔타軍 前半에 十四對二六으로 不振하다가 後半에 들어가 十九對二十二로 結局 스팔타軍이 滿洲關東州(關東州俱樂部)軍에게 惜敗하였다

▲男子一般府縣對抗決勝

스팔타 33 (19—14 14—22) 48 關東州

關東州(關東州俱) 48 (22—26 19—14) 33 스팔타(京城)

開始十時半 小本判 普田、牧山

反則	得點	【스팔타】		【關東州】	得點	反則
2	8	韓日東	F	山田	8	0
3	17	申光浩	F	溫田	10	2
0	0	金在春	F	佐佐木	0	0
3	2	金容武	C	金	15	1
3	6	朴東燦	G	小澤	11	4
1	0	李貞鎬	G	藤谷	2	0
0	0	李文鎬	G	寺井	2	0
12	33				48	7

14 FG 20
9 FT 8

陸上競技

一萬米決勝은 十二時二十分에 開催되었는데 參加人員은 五十四人이었다 成績은다음과같다

【一萬米決勝】
一着 村社 三一分二二
二着 柳長春 三二分四秒
三着 河野 三二分五秒

【마라손競技】
一着 吳東祐 二時卅一分廿六秒
二着 樺澤 二時卅四分廿秒
三着 南起龍 二時卅六分五秒

排球

▲女子中等決勝
筑紫(福岡) 21—15 12—21 21—12 中村高女(東京)

明日의運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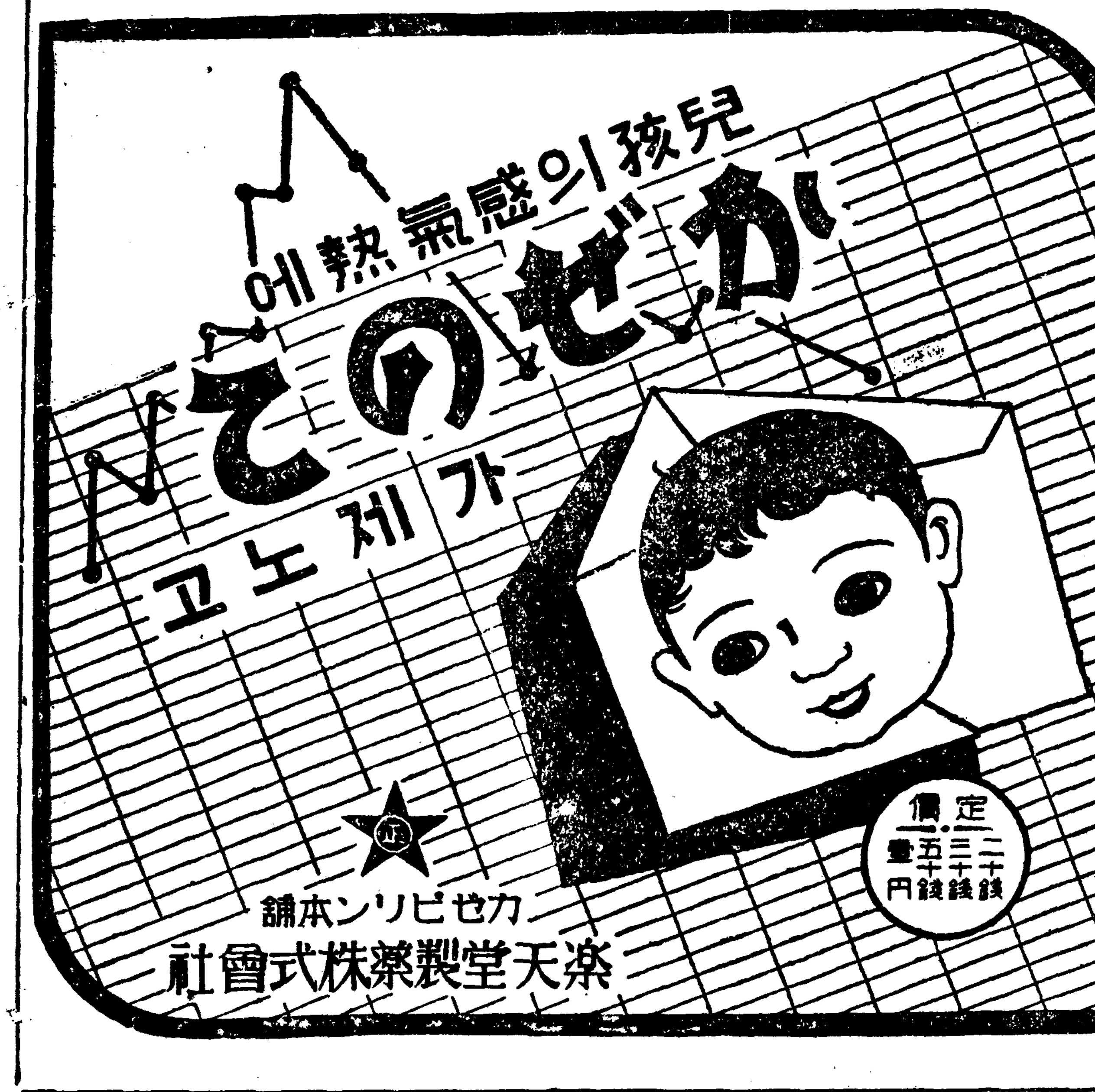
▲劍道=第三回 延專對世醫專定期劍道對抗戰 正午부터 世醫專道場에서
▲柔道=日米對抗柔道朝鮮代表豫選戰 第三日 入場料一般五十錢 學生三十錢 本町大講堂에서
▲蹴球=全朝鮮綜合蹴球選手權大會 第三日 午前十一時부터 觀覽料 一般 三十錢 學生二十錢 京城運動場
▲籠球=第三回 全朝鮮學生籠球 秋季리-그戰 第八日 豫科大學 法專對世醫專 延專對中佛專 午後一時半부터大學豫科에서

今夜의라디오

第二放送 ▲午後六時 唱歌와唱歌劇 ▲六時二五分 講演▲七時三〇分 講演▲八時管絃樂▲八時三〇分 野談 菊花잔치 申鼎言 ▲同九時 歌曲 ▲一〇時 레코-드音樂

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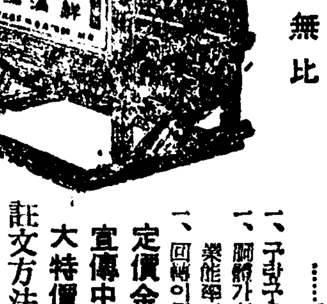
▲十一月四日(土曜日) 陰九月二十三日▲干支…乙巳▲日出…午前七時▲日南中…午後零時十七分▲日入…午後五時三十四分▲月出…午後十一時五十九分▲月入…午後零時五十二分▲滿潮…午前九時三十五分 午後十時二十分



學生募集 滿洲國公認 舊名 滿洲自動車學校 改稱 滿洲自動車專門學院
創立以來十七年、設備全滿第一、合格率最高、就職迅速、在學三百名寄宿舍完 活動的實際教育、乘用トラック練習 ▲學則要求次第無料送呈
本科三個月卒業 受驗科一個月卒業
每月一日新學期開始
奉天商埠地十一緯路五五・電話(二)二九四四番

朝鮮日報間島支社 電話八二七

ラヂオ外務員 男女募集
履歷書携帶黃金町朝取ビル三階 本人出頭 月收百圓程度 詳細는面談하시압
朝鮮放送協會

萬年脫穀機 宣傳特賣
最新式 堅固無比 故障絕無

特、長……
一、링그式으로故障絕無
一、脫穀能力가在來式보다二倍以上이 廣大하야作業能率이倍加
一、回轉이輕快하야作業農夫에疲勞가無함
定價金四十一圓을 宣傳中 大特價 金三十五圓也
註文方法半額前金을要함 全額前金이면運賃當社負擔
京城府授恩町五五 三和商事農具部 電光三一八四番 振京二七六三番

拜啓 霜辰에 尊體多福하심을仰賀且祝하나이다 陳者北漢山麓貞陵里貞陵川上流에 松林水石을따라靈境一隅에 淸水莊이라는料店을新築하옵고 十月三十日부터開店하여高級的奉仕로 親切酬應하와 一般高客의 要覽하시는 四時의 淑景을案內코저하오니 下命하여주심을바라오며 (自伊驛道東貞至無料酬應하겟습니다)餘冉不備敬
昭和十四年十月二十九日
東小門外貞陵里
朝鮮料理 淸水莊 電光③二〇三番

中風、半身不遂、動脈硬化에는 心臟病、內腫、痰腫에는
原因療法을하여 病뿌리를업새야납니다
原因療法으로 第一血液을淸血시키고 여러가지毒(梅毒、淋毒、酒毒、煙毒、藥毒、膽毒)을 體外로排泄시키며 五臟六腑를補하는데 비로소 眞正한治療의法의缺陷은 單只其局部에만 作用할藥을 使用하여왓스므로 在來治療次發하는 폐단이 만엇섯는데 只今世上사람이 健康을確得할수잇습니다 內强壯劑「海草精」은 病의根源을 쏙빼버리는 效力을보아 每日가치 感謝狀을밧는날로 淸血排毒할수잇스며 效力에 驚嘆하게됩니다 海草精으로 速히 强大하여 누구나 服用하는 氣分을 個月分四圓九十錢 二個月分九圓三十錢 送料三十六錢 貴下의 痼疾을곳치소서 改正藥價는 一히製藥하여 速送합니다 京城府鍾路六丁目二六七番地 先金注文에는 送料弊所負擔하여 精密 분에 仔細한病理와 治療方法의 冊子를 無料添送 ホルモン醫化學研究所로 注文하시는 振替京城二三〇九八番 電話光四〇六九番

寫眞機及材料 中古機械及レンズ 買賣交換 現像燒付引伸引受 京城鍾路四街 東亞寫眞材料商會 電話②七七九八番 振替京城三三五七番

中古樂器買入 ピアノ、オルガン、蓄音機、其他樂器 高價買入 京城明治町二丁目三一

朝報案內

저고리치마 금자옷고름 新柄

乳母求함 至急 元山府仲町一丁目 市田郁二

生徒募集 開拓ノ先兵 自動車部隊ノ招ク 必ズ免許 朝鮮自動車學校へ 京城府太平通

百餘名紹介業者中 詐欺輩를徹底掃蕩
開城署서嚴重한內査開始

【開城】부내소개업자수는 인사소개자 백이십여명 한개월배오십명의 다수에달하는데 이들의 내면을 살펴본다면 소개를하고 도조한장부에 기재치아니하고혹은 간언리설로 사기적언행을해서 남을속여먹는 악덕분자도 잇고 또한허가업는 가짜거간이나 인사소개업자도만타한다 그런데 이런 사기배들은 예기작부등 인사소개업자중 더욱 만타는바 이번개성서에서는 특히 이방면에 유의하여 현재상황에 그치지안코 이면내사를 엄밀히하리라하며 또오는 징벌에는 이들업자를 전부 소환하여주의 사항에대한 엄중한지시가 잇스리라한다

平南亞麻試作 成績良好

【平南支社發】평안남도에서는산간지대선천(宣川)의 영해대책과 군수자원확보의의미로 아마(亞麻)를 약오정보터 시작케하엿는바 이외의호성적으로 풍작은 전조선업이여서 반당수확이 실원의 수확을하엿고 그경작의 뒷자리에는 다시모밀 채소 당배등을경작할수잇다고하니 농가의부업이 라하기안을수업다 이에도에서는 더실오면도부터는 일약작보면적을백정보로 증녀할계획이라한다

慶南教育會總會 十七、八兩日釜山서

【慶南支社發】제십오회 경남교육회총회는 오는십칠 십팔양일 간 부산고등소학교에서 개최하기로되엿는데 제일일에는 총회와 교육순리가잇 물고차위상제를 진행하고 제이일에는 도내교육사 견학(鐵道)대회날 열기로되엿다

鰮群은大學廻游
咸南水産課에서言明

【咸北支社發】정어리업자를 비판할것이업다— 지난달 이십오일부터 기다리든 정어리가 잡히기 시작하자 연안에서는 하도평균 이만오천여동의장어서 십상의 구령에빠지고잇던 업자들이 겨우 수미를 펴게되엿는데 도수산과의 보고를보면 지난이십팔일부터 삼십일일까지 나흘동안 함남에서 잡힌것만 구만육천사백동이다 ... 수가된다 그리고 일일부터는 죽풍으로 다시출어를 중지하고잇는데 정어리의 때는 가버리지안코 연안에잇스니 업자들은안심하라고 도수산당국에서는 자신이게말하고잇다 그리고 삼십일일까지의 누계는 이십만일천백팔동이나되어 작년의 동기보담도삼십일만 백구십동이나 부족되나 요즘을 ... 어회상과 지금피우하고잇는 정어부터는 상당이만혼으로 근심할 필요는업다고 보증하다시피 말하고잇다

不幸中多幸!
慶北道代作豫想高 七十四萬千餘石
播種後天候順調로相當한豊作

【慶北支社發】(慶北道農務課發表) 경북도내의 대용작식부의총면적은 두류(豆類)일천이백심사(…)

◆豆類三千四石◆粟五十一萬五百石◆蕎麥三十九萬九千六百六石◆黍二萬二千百二十四石◆稗六千五百六十八石◆合計七十四萬一千二百七十二石

인데 대용작물과종류에 전종의 순조로 최초예상보다 상당한풍작을 보게된것이라한다

平壤府에서 採石場을經營

【平南支社發】평양부가 목장사를 시작한다—평양부에서는 건설도상의 부와부민을위하여 산돌을제공하는일방 부의재원(財源)을 사기위하여채석장을 경영하기로하고 갈흥리(坎興里)의 일수하였는데 토지가격약삼만원 설비비 약일만오천원으로 첫해부터이 만육천원의 수입을 어들것이라니 장사하고는 상당히유리한것이라하지안흘수업다

雜穀暴利奸商輩 今後嚴取締方針
北釜山署經警係에서

【慶南支社發】북부산서 경제경찰계에서는 지난일일 관내의각잡곡판매가격을 일제조사하엿는데 그중 과반수는 잡곡의공판과 공정까와 협정까가업는것을이용해서 엉터리업시 비싸게판매하고 잇는것이 판명되어 그들상인에게 엄중설유하여 적정가격으로 인하여 판매하도록하엿다 금후 이러한 상인에는폭리취체령을 적용하여 단호처치할방침이라한다

고 대진일정은 삼일오후에 각교수장이모이어 추첨결정케되엿는데 각교의 진용은다음과갓다

同居親友를刺殺
原因은平素感情으로 南浦碑石里의慘事

【鎭南浦】지난조하룻날 오전한시반쯤 진남포부내 비석리(碑石里)에서 살인사건이발생하여 큰소동을 일으켯다 이담보를들은 남포서에서는 곳현장에 달려가보니 피해자는 선협이임리하여 죽어넘어젓고 가해자는 어디로 종적을 감추어버렷스므로 곳비상소집을하여 수색한결과 동리 ...

鐵道自殺一件

【慶北文社發】지난이일 오전여섯시쯤 부산 가야리(伽倻里)삼 ...

各種紹介業者 平壤署서團束

【平南支社發】평양부내에는 허가마튼 부부산조개업자와 인사소개업자가 일백삼십명가량잇는데 근사가옥건축의 매매성행과 인사왕래의빈번으로도 그날을일하는 ...

女子高等校開校式
一日南山觀敎會서盛大擧行

【平南支社發】얼마전에 인가를 마튼 ...

晋州師範建築費 六十萬圓으로決定

【晋州】대망턴 진주사범학교는 이미 내년도에 설치할작정으로 이미 팔십만원의 예산이 재무국사정을마치고 대장성(大藏省)에 회송되어잇다는바 진주는 부제실시와 동시에사범학교까지 설치케되면 부세약진에 큰도움이될것은 명백한사실이다 이제사범학교의규모를보건대 보통실습지부소소학교등에 요할기지 총평수는 오만여평을 넘을것이라하며 건축비유심만원 이개년계속으로 완성될것이며 경상비는이십만원을 요한다하며 심상과만하더라도 매년심학급씩 모집하여 완성후에는 십오학급이되리라하며 그규모의 크기가전조선에서 경성사범에 다음가리라고한다 내년도에는 심상과강습과에 각삼학급씩 이백사십명을수용하리라한다

青春男女情死 女子만은回生

【元山】강원도평창군대화면(平昌郡大和面)에 본적을두고 원산석유공장 직공으로잇는 한홍규(韓興奎)(…)와 원산부 명석동(銘石洞)칠번지 채모의딸 채명숙(蔡明淑)(…)은 지난삼십일 오후세시쯤 부내장촌동(場村洞)석유공장겨테서 서로난니 다량의쥐잡는약을 먹고 한홍규의하숙에 도라가 서로끼어안고 정리 ...

消都의人氣集中한 四醫專蹴球戰
四日箕林里球場서開催

【平南支社發】「스포—츠」를통한 친목의교환인 제이회사의전축구리—그전(第二回四醫專蹴球리—그戰)은 각방면에서 만흔기대를가지고잇던중 마침내 금사일부터양일간(매일오전열한시개전)평양부내 기림리(箕林里)공설구장에서 평양의전주판 본사평남지사후원으로 호화스럽은 ... 이열리게되엿다

이는 장내의사들이 망나한부대의대전으로하여 이채를띄우고잇는데 이대회의 우승교에는조선일보사장배(盃)를 수여하게되어 더한층그들의패기(覇氣)를북도두고잇는바 과연어느학교가 ... 의 주목과인끼는 굉장하다 그리

新炭公定價格 咸北道서設定準備

【咸北支社發】함북도당국에서는 엄동을압두고 나날이 폭등을보고잇는 시탄가격(薪炭價)을 제대로 방임할수업다하여 여기에도 공정가격(公定價格)을 설정하려고 방금각방면으로 여기밀요난 준비를하고 잇다는데 불원에 실시하게될것이라한다

京城醫專
部長 白麟濟
監督 李在馥
코ー치 魯炳鎬
主將 崔鎭恒
마네저 宋浩星
選手 金永燮 鄭承勛 韓景灝 吳萬煥 李春益 宋浩星 任周鳳 金鳳瑞 崔鎭恒 朴在昀 黃鏞 尹德善 李內秀

大邱醫專
部長 朴泰煥
마네서 黃善福
主將 趙廷澗
選手 金正奎 崔根涓 朴泰仁 朴在煥 黃義言 金承泰 金洋圭 徐錫源 趙廷澗 鄭周沐 金重

平壤醫專
部長 坂田毅授
마네저 朱亨鎬
主將 朴學鳳
選手 大鵬房之助 朴浩根 咸光瑞 俞彰福 金鶴植 張翯晃 李元榮 金昌駿 朴學鳳 姜一泳 李晃雨 趙東錫 張時竹 李相武 金弘錫 韓世顯

京城世專
未着(二日)

大規模賭博團 一網打盡
慶北安東署에서

【安東】지난이십팔일부터 삼십일까지 경독안동경찰서 형사대는 와룡서부곳(臥龍西部)에서 금빈면주재소의 응원을어더서 부동리를 계속으로 흔은 와데칠월부터 ... 에서 흔은 서면내가에서 최하한다

臨時郡守會議 六日全北道서開催

【全北支社發】한해대책 ... 결정하기위하여 임시도시사회의가 지난달중순에서 열리엿스나 ... 이회의에서 결정된 이상구체안을 각부윤군수에게 철저시행시키기위하여 전북도에서는 오는육일 오전열시부터 도회의실에서 임시부윤군수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엿는데 토의사항은 식량배급통제 한해대책 기타시국긴급사항이라한다

大金所持한不審男 釜山署檢束調査中

【釜山支社發】지난삼십일일오후열시사십오분 부산잔교착열차에 남포당하리(…)한명 ...

삐라의文句問題로 得信學校長被檢
南浦署高等係서嚴重取調

【鎭南浦】진남포서고등계에서는 며칠전에 부내 사립득신소학교(私立得信小學校)김교장외한명을 구속하고 이래엄중히취조중인데 탐문한바에의하면 전기학교에서는 얼마전부터 승격운동의준비를하고잇던바 그경비의 일부를 어들목적으로 미국 「바테어디쇼넬」회사의작품인 영화 왕의왕「王中王」와 시국뉴ー스등을 가져다가 당시항좌(港座)에서 지난달이십륙 칠양일간 상연한일이잇섯는데 그영화선전문중에문구가황실에대하여 불경으로 보이는점이잇서여러가지로 취조를하는한편 평남경찰부와 협의를하고잇는모양인바일반사회에서는 ...

土改工事協議會 七日全南道서開催

【全南支社發】전남도에서는 한해대책으로 도내각군각지에 대소수리조합을 설치하고 ...

大淸津建設에朗報 港灣擴充案採擇
日本港灣協會總會서

【咸北支社發】지난 삼십일 동경에서 열린제삼십이회 일본항만협회총회(日本港灣協會總會)에서는 청진항만확장 ...

茂山上水道竣工 一萬邑民의宿望達成

【咸北支社發】무산개발(茂山開發)의 진척을따라 산간도시던 무산읍은 갑자기세상에 뛰어나와 범써일만이상의 인구를가지는소도시로 발전되고잇는데 ...

第二回 四醫專蹴球리ー그戰
四日【第一日】午前十一時開幕 (於平壤公設球場)

光州兵事部 廳舍上樑式

【全南支社發】광주병사부는 금년七월에 새청사를 보게되어 현재 망주헌병대청사일부를 빌려 임시로 사무를집행하고 잇스며 병사부청사를 대화정에신축중이던바 이일오후 세시 ...

누구시든지부드럽고 第一아름다워짐니다

高尙하고청초한향츤! 눈에띄일만한效과!

레ー도구레ー무를 愛用하시면 누구시든지 눈에띄울만치살결이아름다워집니다。레ー도구레ー무는 發賣以來數十年의 貴重한經驗에서 제조된 世界에第一조코信用잇는化粧品임니다 그리고

婦人의化粧에도…
男子의面刀後에도…
참으로理想的임니다

一、살결을아름다웁게하고
二、化粧바탕을 조케하고
三、面刀後에곡잇서야할것

レート化粧料本舖・東京・平尾賛平商店

レートクレーム
레ー도구레ー무

祝 漢城銀行江華支店開設

江華窯業株式會社 社長 洪在龍

森信運輸(株)會社 電二八番

江華叺代行所 金模鎬

江華人蔘組合

精米業 金甲正 電四二番

江華產業組合 電八番

江華司法組合

金訓泰商店 電四〇番

江華釀造(株)會社 電一〇番

朝陽紡織(株)會社 電三四番

朝鮮料理 迎春館 電一八番

江華紡織工所 成逸鎬

江華郡廳

江華穀物協會 電三二番

見本無代進呈 試供品 有資格者限
用代 ネヒルモ
醫學博士 朱某先生推奬
最新強力鎭痛・鎭靜・鎭咳・麻醉劑
ネオモヒナール 注射液
京城府花洞町七一地番 京城府三一一四番
販賣元 春信藥業社
製造元 天光製藥所

京南支局電話開通 電話龍山二、三〇二番

ニッヨリ
映社提供 ダニエル・ダリュウ ピエル・デュックス ピエル・マンガン ジャツク・デュメニール アンリドコアン 監督 共演 青い空、美しい葵畠 風薫るハン ガリイに描かれた悲戀抒情詩

曉に歸る

製作 李載明 撮影 梁世雄 音樂 朴榮根 監督 李圭煥
徐月影 文藝峰 主演 金一海 李夢龍 張斗鉉 金演
新しき出發 大好評!! 續映

午前十時半開演
大陸劇場

有名한 醫學博士 森田資孝先生推奬

頭痛이아니라도머리가무겁고호릿호릿할때나
過度한讀書로睡眠이不足할때나
술을過飮하야그翌日氣分이좃치못할때나
이노ー신한봉만잡수시면 神出奇妙하게도나을뿐만아니라 平時에服用에하신대도 머리가아주明快해짐니다
이藥은全國賣藥店에잇습니다 各處藥局에도무러보십시요

머리가몹시아플때 ノーシン 노ー신
골치가갈러지는것가티쑤실때 노ー신
간간히번두머리를알을때 노ー신

ノーシン 노ー신

定價 四包入 二十錢 七包入 三十錢 十三包入 五十錢 二十八包入 一圓

이商標에注意하시압

發賣元 名古屋市東區京町二丁目 荒川長太郎合名會社 振替名古屋七五五三番

評論振興의方途 (下)

安含光

文藝時感

朝鮮의評壇이理說論에서 다시 俗論과 獨白을거처서 지금은 國筆式雜文이 斷然優勢이라는것은 그에對하요 多少나마의 關心이라도 가저온 사람이면 누구나 다感知하는일이겟거니와 이를 요새流行語로서 말하자면 文學論의 貧困이라할도 表現할수잇는것이나 아닌가생각한다 新聞은 그의特質때문에 時事性과는 比較的距離를 갓게되는 文學論의 隆盛을위하여 積極的으로 努力할수는업는일이 겟거니와 一般

雜誌 에서도 亦是消息은 잠잠하다。勿論 그는 오늘이란時代의 特質에서도 緣由되어지는바 만흘것은 두말할것도업다。그러고 具體的인作家論이 要望되어지는 所以도여기에잇다 또作品月評이란것이 廢해지는理由의 一端도 여기에잇슬거다。

그러면 이러케文學論 업서진 代身에 그것이 作品月評의미장을밧슬고잇는 礎石으로는 使用되어지고잇느냐하면 그런것도아니다。批評基準이 업서젓다는말은 하나의 옛이야기라서 喋喋할興味도업다。또 오늘批評의作格이、一種의實證主義的 냄새를 풍기고잇다는것에 對해서도 이야기하지안흐련다。그러한一切의 思想과關聯되는 問題를떠나서오늘의批評이 보담根源的인意味에잇서 誠實과正直의 一貫性을扶持하지못해 애쓰고잇다는 一點만에서라도 그의原因이 原則論의衰微우에잇다는것을 생각할必要가잇다。作家論、作品月評等이 必要한것은 두말할것도업는 일이어니와 그는 同時에 原則論의 追求와 並行되어저야한다는이常識을다시한번 銘心할必要가잇다 그리고 新人創作을 懸賞募集하게되는 境遇에는 評論에도半席을 마련해줘야할것이고 詩나 小說을 推薦케되는境遇에는

評論 도 좀보아줘야할것이며 한號에 一人一役식 시키게되는 境遇에는 붓대를 내던지고 당구는 친구도 잡아이르키어 일을 시켜야할것이고 또 新人도 불러내야할것이다。

創作壇이 해마다 有爲한 新人을 잡아내고잇슴에 反하여、評壇만이 寂寞하다는것은 實도 얼마나 섭섭한일이냐!

率直히 이야기를 謙讓하여出版界에 對해서 몃마디하기로한다。

文化의 發展을 위하여는 어떠한 條件이 必要하냐?하는것은 實로 넓고 기픈問題이어서 簡單히 對答할수는 업는일이다。하나 基本的인 面에서생각해본다고하면 모—든 生活機能이 均等한 機會에서 完全하게 發揮되어질수잇는 條件이 必要하다는것만은 이야기할수잇는일이다。

生活的 機能의 充全한發揮! 이는 勿論 보다도 實質的인問題와 關係되는것이겟거니와 이를 文學世界에局限해서이야기한다고하면 文學의모—든『장르』—詩、戲曲、小說、批評等이同一한機會미테서 活潑히自己의

機能 을 發揮하며 主張하며 하여야할것이다。

勿論 時代의特性에따라서 詩의時代도잇섯고 戲曲의時代도批評의時代도 散文의時代도잇서은 것이事實이겟지마는 그러나이러한史實로부터『장르』各自의開花를阻止해야한다는結論은 成立되어지지안는다。그와는反對로『장르』各自가 다토아開花할수잇는 때에만 藝文의將來는 保障되는 일이오 온전히 發展되어질수잇슬 것이다。

그럼에도不拘하고 오늘出版界에서는 詩集이나 小說集以外에 評論集은 刊行되어지지 안는것갓다。

이리하여 詩나小說만이 自己表現을 말할수잇고 評論은自己表現을 말할수업는 狀態에잇는 것갓다。

이는勿論『노—말』한狀態는아니다。

그럼가운데서도 한두개의評論集을가지고 잇다는것은 이또한 우리의기쁨이 아닐수 업겟스나 너무寂寞한感이잇다。

左右間 이러한狀態가 이대로 延長되어지다가는 朝鮮의

文學 은 절름바리의 슬픔을 經驗하지는안흘가하는 念慮도잇다。

所感의一端을 피로하여 一考를 促하려는所以도 여기에잇다

—끗—

漢詩募集 滄東考選

題 霜菊
押 陽韻部
期限 十一月十五日 (薄謝進呈)

孫子講義 (六)

李昇圭

故로凡用兵之法이十則圍之하고

(註) 十은十倍라 圍는四面으로合圍하여 敵으로하여금 逃亡치못하게함이라

(通解) 故로兵을 用하는法은 我軍이 敵보다 十倍가된즉 에우고

五則攻之하고

(通解) 我軍이 敵보다 五倍가된즉 치고

倍則分之하고

(註) 分은 敵을 分裂케함이니即 我兵을 兩分하여 敵으로하여금 半을나누어 막게하면 敵의兵力이 半이減하여진다

(通解) 倍가된즉 分裂케하고

敵則能戰之하고

(註) 敵은 相等의 兵衆多少와 智勇과 利鈍이 서로等함을이라

(通解) 相等한즉 能히싸우고

少則能逃之하고

(註) 逃之는 我兵이 敵보다 적거든 退兵을 굿게지켜서 그形容을 淸隱하엿다가 천천히 敵의 可攻할틈을보아서 친다는 뜻이라

(通解) 적은즉 能히숨기고

不若則能避之니

(註) 避之는 我兵의 多少強弱이 敵과 가트지 못한즉 軍을引하여 避하느니라

(通解) 가트지못한즉 能히避할지니

故로小敵之堅은大敵之擒也니라

(註) 小가能히 大를當치못할이니라

(通解) 故로小敵의 구든것은大敵의 사로잡힘이되느니라

夫將者는國之補也니補周則國必強하고補隙則國必弱이니라

(註) 杜預日將의 智謀가周密한즉 敵이 能히엿보지못하는故로 그나라가強하고 缺隙이잇슨즉 敵이그틈을타서 드러오는故로 그나라이 弱하니라

(通解) 무롯將帥된者는 나라의도음이니 도음이 周密한즉 나라이 반듯이強하고 도음이 缺隙(틈)이잇즉 나라이반듯이 弱하니라

(例) 南宋高宗이 中原을回復하기爲하여 岳飛로將帥를삼어 江北을처드러가니 中原의父老가 다 岳字旗(岳飛의旗號)를바라보고 어서오기를 기다리고 宋의敵인金國은 岳飛의軍의게 여러번敗하여 서로말하되 山을흔들기는쉬울거니와 岳家의軍을 흔들기는어렵다하고 엇더케두려워하든지 岳飛의姓名을 敢히 불으지못하고 岳爺라하엿다 金國이 宋의宰相秦檜와 密通하여 高宗의게 諸하여 岳飛의父子를 獄中에 서둘너 도라오게하고 因하여獄에나려죽이니 金國이그말을듯고 大宴을 排設하고 서루賀禮하고 말하되 인제는근심을 노앗다하엿섯다

世界의귀

듯는小說出現 푸리스트리大成功

이번歐洲戰亂의 宣戰布告가『라디오』를通해서『첸발렌首相의입으로된지 몃時間안되여서 英國의最大人氣作家『J·B 프리—스틀리』는 戰爭하면의 實戰인 英國最初의『라디온』小說『民衆으로하여금 노래부르게햇다』의첫放送을하는 幸運을가지게되엇다

段伐한戰爭『뉴—쓰』의連貫뒤에 이것은매우効果가잇섯다고한다 그의發言은 매우독특하고 또 興奮하지안엇고 그의平常의날소리라던지 이야기하는때의 自然스러운 語調가그대로 사리서『B·B C』(英國放送協會)의첫試驗은 大成功을거두엇다고한다

『리스너』(B·B·C의機關紙)는 말하기를 小說의放送은 지금까지는 이리는것만 目標로하고 씨어지던小說의 文章에 一大革命을가저오리라고 斷言햇다 如何間이번試驗은 여러가지로 생각할問題를 提供한다 그러나읽는小說이말고 듯기는小說이라면 詩劇的小說이 법서할일이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지안엇슬때름이다 이번試驗에우리는 다시한번 이러한角度로부터 小說의文章을 살펴보는것도 無益하지는안켓다

家庭

어린이의건강에는 어머니가책임지도록
평상시부터 체온 맥박등알아둘일

가정에서 어린이의 건강에 대해서 가장잘아는이는 역시 어머니입니다。어머니는 어린이와 일상생활에주의해서 튼튼하게 잘커가나 못가나를주의해서 보아야합니다

그래가지고 병이난다든지하는경우는물론어느정도까지가건강한것인가를 잘알어두어야합니다

첫째어린이기분이 나뿌거든 웨그러케되엇는지를조사해보아야합니다 반드시무슨원인이 잇기때문일것입니다。

그다음 음식먹기를 실혀하는 경우도생각해보아야합니다 간식가튼것을 만히 먹여서 저녁밥맛이업다든지 또이가아퍼서잘먹지못하는경우도 잇는데 그러치안코 밥을 잘먹지안는것은 반드시무슨원인을 대긴것입니다。

셋째로 호흡수가 건강한어린이는 일분간에 이십에서이십오까지인데 이보담 만허도 안되고 적어도 조치 못한것입니다。

넷째로는 튼튼한어린이는 맥박이 일분간팔십전후인데 잘못되면 일백오칠십이되는수도 잇고 아주떠러저 오륙십이되는경우도잇습니다 이것은 다 조치못합니다

다섯째는 체온인데 튼튼한 어린이는 삼십칠도 전후인데 어린이에따러서 고저가잇습니다 그리고 체온은 평상시에도 잘알어두어야하는데 삼십칠도보담만다고 그게병이되는것이아니니까평상시체온을 아러두는것이 무엇보담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로에도 아침은 얏고 밤은 노픈것도 아서야합니다

그리고 운동한후에는체온이 노펴지는것이요 하로에잇서서도 오후세시가 제일 노픔니다 그러므로 체온을 재일때에는 적어도 십분가량은 그대로두어야합니다 보통은 겨드랑이에 너허서두넌 사분가량해서 알수가잇습니다

여섯째는 살결빗갈인데 보통은 윤기가잇고불근편입니다 만일푸르고 윤기가 업는것은 병이아니면 발육이불량하기때문입니다 또 입술빗갈이 자주비치되거나하는것은 열이잇고 오한이나서 그러치안흐면가 알어볼필요가 잇습니다

일곱째는 대변인데 하로에한번이나두번쯤 시간을정해두라게조흡니다 만일 이상이잇거든반드시조사해보아야 합니다

이상과가치 어머니는 항상어린이의 건강에 주의해야합니다 그러타고 너무지나치게관심하는것은·도로혀 건강한어린이를병사로 맹그는수도잇스므로 이점는역시주의해야할일이요 적어도어머니로서 그자녀의 건강에대한지식만은 충분히 가지고잇서야합니다

가정살림에필요한 주부의 계량관념
눈、임에들지말도록주의

★모든물짜가 어느것이나 귀하지안흔것이업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물짜가귀하다 귀하다 떠들기만하지만 실상얼마나물자가 귀하고 애껴야한다는 경험이적다고 보겟습니다 아프로 식량문제가 여간곤난해지지안흘것을 알면서도그대로물건은 조코빗잔것을 사랴고하는 경향이잇습니다

★그러는편닙저울무게가 부족한것도 모르고 그냥갑시싸다고 사버리는 수도잇습니다 그러므로 위선가정에서는 계량에대한 충분한지식과 판심을가저야됩니다

★가튼소고기를사는데도 오십전어치를 달라고도개로 사는것보담 오십돈메면 오십돈메로 잘달어반는편이 훨신유익합니다

★모든물까는 공정가격이정해저서 이이상더올으지 안으므로아프로주의할것은 계량에 대한것입니다 장사치들은 개중에는 어게량에잇어서 눈속김을 하게되는수가 업지안흘것입니다 그러므로정확한근을사더래도 정말한근이 되는지안되는지 주의해서 살펴볼가잇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도게량기즉저울을준비 해두어가지고 달어보아 자주틀리는 일이잇거든 그상점을 신용못하게되는것입니다

★또어덧물건뿐아니라 가정주부는일체로 계량에대한 정확한판렴을 가저야합니다 가령 물을끄리는것도 조곰끌일데도 숫에물을붓는다든지 매일짓는 밥이되기도하고 줄적거리기도 하는것은 결국주부의 계량관렴이업기때문입니다 또간을마추는데도 간장、소금、설탕고추가루를알맛게해야지짜면물을붓고 싱거우면 도소금을넛는다던지 이러케 불규측해서는 가정살림이 결코규모잇게될수가업는것입니다

新刊紹介

▲朴泰遠短篇集 (朝鮮文庫) 發行所 京城府鍾路二丁目 朝鮮敎育圖書內 學藝社 振替京城一六一六四番 定價五十錢

▲時光 十一月號 發行所 京城府滿原里町一 時光社 振替京城五七四三番 定價十二錢

大地의아들 (19)

滿洲開拓民小說

李箕永 作
崔木朗 畵

都市의誘惑 (二)

그러치만 고대하든 새봄이도라와다 웅덩으로 춘분절후가지나면서부터 눈속에 어리부엇든 땅은 차차 풀리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지동치듯 연일부는 봄바람은 유명한 이고장의 흙몬지를 날리엿다。그것은 토우와가차 천지가 자옥하야 지척을 분별할수 업게하고 눈코(目鼻)뜨게햇다。

그러나 식거문 흙속에서는 어느틈에 새싹이 일제히 움터올는다 푸짓푸짓한 흙덩이가 떡쪼각처럼 갈너진다

겨오는 농사철이 되자 겨우내 가두어든 정렴을 일시에해방하야 신푸리를 시작햇다。거기는 바로 병호가 개척한 논으로 여정한 저습지(低濕地)엿다 이땅역시 병호가 어더짓는 만인지주의 소유인데 그는 건오가 안드러왓스면 자기가 더짓든지 누구에게나 바천을주라고 연부리(年限附)로 어드라든것이엿다

병호는 그동안의 경험으로도이고장의 사정을 통하게되엇다。첫째 그는 만수답을 할양밧고 거기따러서 그들의생활속을 깁작하게되자 차차 그들과 접근할기회를지엇섯다。그래서 만인의지동(地東)—地主—과도 알게되엇는데 그도 처음에 이곳에 들어왓슬때는 한해동안 방천사리를 살어보앗섯다。그것은 병호뿐아니라 남만주나 간도로 들어왓던 이주민들중에 인종이만허질수록 거기서도 땅이귀해서 주접할수업는 사람들은 차차 북만의오지로 밀려들어왓섯고 그런 사람들은 대개 방천사리를 할수박게업섯다。

그래 이때쯤 해동이 될무렵에는 방천사리를 구하려들어오는 사람들이 여거저거서 적지안혓다한다。

그런데 건오는 다행이 병호의발련으로 초대로드러왓스면서도 수얼하게 싼땅을 어들수잇섯다。그는 여섯쌍을 주자는한단씩 주기로 어덧기때문이다。

그때 이웃사람들은혼저손포에 그러케 짓기는 너무 과하다고 러서 만일 뜻대로 풀수잇다면 당장 옥토안으로 한미천잡을수잇을것이아닌가。그러생각을하니 그는 금시에 원불안의마음들이 활개가름 벼이삭으로 도러선것처럼 황홀하게 보이엇다。

사실그것은 조금도몽상(夢想)이아니엿다。

여기농사는 조선가치 모짜리를 하도안코、더구나 신푸리는 거름도 안준다니 힘들것이별로 업지안은가。그래처음에는 거짓말가치 들리엿스나 먼저해본사람들이 그러라고 우기니미들수박게업섯고 그들이 하라는대로 배울수박게 업섯다。

황지관의 신푸리는 논바닥을 쪼을것도 업다한다。그것은 대충지면을 골너서 물을가둘때에 수평(水平)이되도록해노면 고만이엿다 그리고 논배미를 구분해서 논둑을만드러노코 그안에 물을대도록 만들면 우선 개간된 수전으로볼수잇다는것이엿다

하긴、건오가 어든 황지에는 약간의포자(泡子)—(天然水溜地)가끼여잇섯다。그러나 거기는그리 기푸지안어서 근처의 노픈데를까무겨다가 맥구기만하면 이공보궁이 될수잇섯다 묵맹이는커녕 모래하알도업는 흙땅이라 그것을파내기도 수월하엿다。

그리하여 그는 병호가 식히는대로、풀바테다 물을 가두어너코 벼씨를뿌려두엇다。

그벼씨가 아ㅣ를 틀무렵에하루는 낫을들고 드러가서 마른풀의우둥지를 처내엿다。그래더니 물미테든 풀뿌리는 썩어버리고 그위로 새파란 벼싹이 커올는다。그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이엿다。풀뿌리는 제물로 거름이된 것이다。

만주의 토질은 이상하다。식거문땅이 푸석해 보이여서、비가오면 곤죽가치 개개푸러지는게 끈기라고는 조곰도업다。그러타가도 말느기만하면 그놈이 돌뎅이처럼 딴딴하게구더진다。그런데 이런땅이 걸기는 무젹걸다한다。이와가튼 토질은 대륙적기후와 보조를 마추어 나갓다。해동이되면서부터 기온(氣溫)은 갑작이 올라가서 인제봄인가 햇는데、어느듯 더워진다

湖岩全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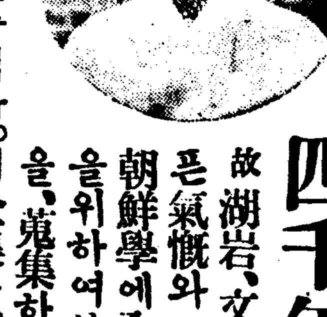
第一卷 政治外交篇

故 湖岩文一平先生遺稿

四六版 總크로스 洋裝美本
定價 一册 一圓八十錢 (送料)
三册 一時拂 五、四〇 (送料)

本全集은 全三卷 一帙
第一卷은 十月十日 發賣
第二卷은 十一月五日 發賣
第三卷은 十二月五日 發賣

京城府太平通 (振替京城五八七八)
朝鮮日報社出版部 發行



千古에빗나는 湖岩의 全遺作
四千年朝鮮側面史의 大集成!!

故湖岩、文一平先生은、廉直介潔한선배이다。松竹에比할노픈氣慨와 구든節介로써 그의全生涯를、通하여、朝鮮史와 朝鮮學에全力하엿스니、그야말로朝鮮을위하여살고、朝鮮을위하여일한、훌륭한學者이다。이제本社에서그의全遺作을、蒐集하여全三卷의、湖岩全集을發行하는것은、크나큰 자랑이、아닐수업다。이全集은、四千年朝鮮側面史의、大集成으로써、政治、外交、文化、風俗、隨筆、紀行、雜筆等온갓것을、收錄한것이니、이야말로、朝鮮史의、萬華鏡이아닐수업다。뜻잇는분은、速히机上에備置하라

社會各層의大讚辭

朝鮮史의指針 歷史家 李丙燾

故湖岩遺稿의 一部分을 蒐集한 人文社發行의『湖岩史話集』에 이어 朝鮮日報社出版部에서는 其餘의 遺稿全部를『全集』의이름으로 三卷에 나누어 方今 그第一卷이 印刷所의 손을 떠나 世上에나오게되엿다。나는 첫재故人을 爲하야 다음으로는 吾人의期待에應하야 이全集은 그가이世上에 기리남기어노코간 큰발자취요 記念塔이라 할수잇는 同時에 그의 平生事業도 여기에 거의다하여잇다고 생각한다。湖岩의 學說、思想、文藝 其他가 이全集에 依하야 世間에 널리알려질줄로 밋거니와 本全集은 무엇보다도 朝鮮史方面에 留意하고 趣味를 가지려하는이에게 좋은 指南이될것을 나는確信하는 터이다。

永久不滅의好典籍 語學者 崔鉉培

湖岩全集은 곳 朝鮮歷史學者 故湖岩先生의 平生한결가튼 篤實한 學者的 生活의 記錄인 同時에 또後人에게 끼친永久不滅의선물이다 우리는 이책의 속에서朝鮮文化生活의 歷史上에 關한한편 知識의 源頭를發見할수잇을것이다 널리 江湖의讀書子에게 나누어드린다

科學的批評眼 開城博物館 高裕燮

湖岩先生을 모시고 말삼을 들려보기는 生前에 한번밧게업섯다 그러나 先生의글은 여러번읽어보앗다 先生의글은 언제나 順由하신말이엿고 無理업는 叙述이엿다 뿐만아니라 先生의研究하시는 方面은 一般文化에 골고루이르럿스되 그破綻이 보히지안흘뿐더러 比較的 科學的인批判眼에도 眞實하시랴든것가렷다 過去 우리文化에 關하여 이러타할만 한好著가 적은 이때先生의 全集은 아마 朝鮮學建設에잇어서 가장 重要한 기둥하의 니를 이룰이다

本書의內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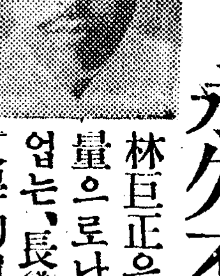
序文及題字 本社社長 方應謨
對米關係五十年史
交涉의起源
交涉의起源과變遷
修好直前의情勢
修好直前의米國態度
正式談判과條約成立
韓米條約의論評
米公使의初期外交
報聘使節과兩國親善
美國初期의對政韓策
駐米最初의朝鮮公使
駐米署理公使時代
多事한施獨公使時代
알렌公使와모간公使
韓末外交
西勢東漸의先驅
朝鮮人과國際眼
史上의庚午年
丁卯胡亂
丙子를通해본朝鮮
李朝史의三丁丑
漢陽朝의政治家群像
滿洲와朝鮮人
史上의奇人
千古의英傑蓋蘇文
百濟亡後에擧兵한輔信
羅朝에叛旗든金憲昌
武臣亂의巨魁鄭仲夫
三別抄亂의裵仲孫
北山椎增의大陰謀
正義에타는僧牛本
舊京에叛據한李通
叛旗든李施愛
喜悲劇의李澄玉
有史以來의驍將李适
民衆革命의先驅洪景來
(以上)

洪命憙先生著

林巨正

第一卷 義兄弟篇 (一)

文壇全社會의우뢰가튼讚辭山積!!



朝鮮人과 生命을가치할 永久不滅의 大創作集!!

林巨正은、朝鮮史上에처음되는大傑作集이다。量으로나、質로나、世界에서、거이그類를、볼수업는、長篇으로서、朝鮮語의가장큰、寶庫이다。文學的價値는勿論이오、한時代生活을、가장큰規模속에담아논、細密한記錄이오民俗材料의、大集成이다。그語彙의豐富한것은朝鮮語의、大言海로써智識人으론、누구나、아니볼수업는大創作集이다

朝鮮語와生命을가치할 天下의大奇書 春園 李光洙

碧初의林巨正傳은 天下의奇書입니다 朝鮮語와生命을 가티하여 永久히傳할 文字인가 하옵니다。누구의게나 재미잇는이야기인同時에 朝鮮의民生이오 나간 朝鮮의레코드라고 밋습니다

千卷의語學書를凌駕 小說家 韓雪野

碧初先生의『林巨正』은 우리歷史小說의白眉요 또 우리文壇의最大의收穫이다 나는 作家의한사람으로서 또는忠實한 讀者의한사람으로서 先生께 여러번그出版을 懇請한일이잇스나 先生는그동이 업슴을말슴하섯는데 이제出版되게되엿다하니 그기쁨은 남달리더기픈배잇다 單純히朝鮮말이라는見地로보더라도 이巨篇『林巨正』은 千卷의語學書籍의勝한것이오 오히려 나올것이니 그러므로文筆을業하는사람이고 아니하는사람이나를勿論하고 이것은꼭읽어야하리라고 나는생각한다

朝鮮文學의大遺産 小說家 李箕永

『林巨正』傳이 上梓된다는말을드고 나도가다리든사람中의 하나올시다 이제八卷의 單行本으로 于先 第一卷이 發行된데對하여는實로 朝鮮文壇의 劃時的大收穫이올시다

이『林巨正』은 彪大한量과아울러 質的으로도가장 優秀한歷史小說로 推獎하기에 누구나躊躇치안을것입니다 뿐만아니라이冊의內容은 敎訓的意味에잇서서도

朝鮮語彙의大言海 大同工專 李孝石

그어느冊에 볼수업는時代良心이 번득이며 讀者의心胸을찌릅니다。더욱그의豐富한 語彙와地理의昭詳함은 文學的傳統이얻는이땅의 新文學徒들이 만흔 遺産을엇게될줄압니다 그바게누구이나 朝鮮사람으로서는 다 읽을必要를느끼는點에서 나는人後에서지안코 江湖諸位에게 推薦하겟습니다

未曾有의大傑作 評論家 朴英熙

洪碧初先生의大作『林巨正』傳이 出版됨은 참으로 慶賀할일이다。林巨正傳은 朝鮮文壇初有의 大作이며 力作이다。오히려 世界文壇에 자랑할만하다。그構想의廣大함과 語彙의豐富함과 文章의流麗함이 前無한 大作이니 朝鮮文學의 殿堂이라고할수잇다。따러서 그價値이 아울러 朝鮮文壇의자랑이다。

朝鮮語의豐富한寶庫 梨專 金尙鎔

林巨正은 朝鮮뿐아니라 거의世界에서 類를보기드문長篇 朝鮮語의 가장豐富한寶庫로 저는이大作이 널리퍼지기를祈願합니다

朝鮮文學의大樹海 評論家 金南天

某某한 大家들처럼 表面에들어나지 안코 숨어서 三十年文學史의 처음이지에 貢獻한분은 碧初洪命熹氏다。그것을아는이는 적다。그리고 그것을 記錄에 올린 文學史家도 드물으리 알수업다。그러나그의 雄篇는 氏의 五十年을 一貫하는 孤高한 節介와함께 우리文學史上의 一萬二千峰이다。寫實主義文學이 가지는 精密한細部描寫의 手法은 氏에잇서서처음이고 그리고 마즈막이 되어도 無妨할것이다。朝鮮文學은 바로서 大樹海를 經驗하엿다。一方『林巨正』은 歷史文學의 典品이어떠한 것인지를 우리 俗流歷史小說家들 아페 提示하엿다。『林巨正』의 出版은 巨大한 遺産의 整理인 同時에 今後의 文學의 굿건한 土臺이오 踏臺이다

興味와實益의歷史小說 語學者 金允經

近者에 歷史的事實을 骨子로삼은 小說이 만히出現됨은기쁘게여기는바외다 林巨正은 明宗때楊州白丁으로써 當時 勳官의守令들의 貪虐과誅求로 良民이塗炭에沈淪됨에 刺戟되어일어난 賊黨의魁首가되어 京畿黃海로 橫行하면서 抱己를快滿하고 官衙를破壞하고 殺戮한 暴行으로 五、六年間나라를어지럽게하다가 마츰내明宗十七年正月에 黃海道討捕使南致勤에게 捕殺된 事實이 洪命熹先生의 밝고굴고힘잇는붓끄트로 小說化되어 出版되게 되엇습니다。여러가지點에서讀者에게興味와實益이 풍부할것을 믿어疑心하지안는바외다。

이時代의大傑作 三千里 金東煥

五十平生을 或은新聞社長으로或은中學校長으로 또어느때는 뜻을갑은 一放浪客으로서 南洋과大陸等地를 외롭게거닐든 碧初先生이 이제史上意中의人物 男兒『林巨正』에托하여 그心中에 갑어오든 萬斛의情熱과 抨論을 퍼부어지은 이名作이 이제나옴을 바라볼때 우리는다시한번 옷깃을 바루잡고『이時代의書』를讀歎하여마지아니할바인가하노라

四六版 布製金字入 洋裝美本
一册六百八十餘頁의大册子 (送料三〇)
八卷一帙十月二十三日一卷發賣
每月 二十日 一回一卷式 刊行

定價 一册 二圓 (送料三〇)
八卷 一時拂 十五圓 (送料不要)

朝鮮日報出版部發行